

'84 시멘트 決算書

姜 鎭 熙

〈韓國洋灰工業協會企劃課長〉

1. 序

어느 산업이나 한 해를 보내면 시간적으로는 비록 짧을지언정 나름대로의 의의와 變化 그리고 特記할만한 일들이 생기게 마련이다.

시멘트 業界도 예외는 아닌성 싶다.

오랫동안 持續되어온 共販制가 해체되고 경쟁 체제로 돌입하면서 共販에만 익숙했던 業界로서는 두려움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볼때 販賣競争에서 오는 會社間的 충돌과 問題點이 있기는 했으나 판매질서가 그런대로 정착되고 競争의 土臺를 마련하는 契機의 한 해가 되었다는 데 뜻이 있다고 하겠다.

또한 輸送의 共同行爲를 통하여 業界의 常存課題인 수송문제를 원활히 해결한 點을 쉽게 지나쳐서는 안될 것이다.

綜合的인 輸送體系를 구축하여 수송능력의 효율적 운영을 기함으로써 그 후 늘어난 內需 物動量 約 400 만톤을 수송의 혼란없이 처리할 수 있었고 대폭적인 消費地 備蓄을 통하여 地域別 供給物量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소비자가 언제나 원하는 量의 시멘트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회사간 物量交換을 통하여 한정된 輸送手段의 효율적 운영을 期하였는 바 이는 모두 國民經濟的 또는 企業合理化 側面에서 기여한 바 크다고 하겠다.

한편 84年度는 시멘트 産業이 본질적으로 內

需産業임을 보여준 한 해이기도 했다.

즉 總出荷中 輸出量이 15%에 불과하여 內需市場에 集中되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수년간 內需는 계속 증가하는데 반하여 輸出은 相對的으로 감소하였는 바 비록 海外市場 與件을 감안한다 해도 시멘트 産業이 결코 輸出指向産業이라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輸出에 있어서 限界點에 왔음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지난 9月末 北韓으로부터 水災物資의 一環으로 시멘트 10 만톤이 引渡되었음은 비록 量과 質에서 별 불일이 없다 해도 分斷以後 처음 있는 일로서 特記할만한 일임에는 틀림없다.

또한 지난 6月 開通된 88올림픽 高速道路가 우리나라 最初로 全區間·全斷面을 시멘트 콘크리트 鋪裝으로 施工되었다는 것은 시멘트 需要 創出 以前에 매우 뜻깊은 사실로 받아들이고 싶다.

이제 한 해 동안의 시멘트 需給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2. 需 給

1984年度의 시멘트 需給은 비교적 安定勢를 보였던 한 해였다.

83年初 시멘트의 內需增加率이 매우 높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業界는 이를 根本的인 景氣回復現象으로 보지 않고 단지 단기적인 需要起伏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나머지 一部 會社에서는 操業短縮을 實施하기까지 했으나 結果는 正反對로 나타나 23%라는 놀라운 增加率을 보인 끝에 同年 下半期에는 供給에 온갖 신경을

써야 하는 愚를 범한 바 있다.

그러면 1984年은 어떠했는가?

비록 前年度와 같은 成長率을 기대하거나 예상하지는 못했을 망정 적어도 前年度의 增加勢 延長線上에서 해석한 나머지 우선 內需增加率을 前年比 8% 정도로 잡기는 했으나 內心 10%는 다소 웃돌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아 供給에 차질이 發生할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그러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 內需는 겨우 4.8%의 增加에 머물렀으며 輸出은 前年對比 63% 수준에 그쳤다.

1) 生産

今年度の 크링카 및 시멘트 生産은 前年 實績보다는 다소 떨어지나 2,000만톤대를 上廻하여 여전히 세계 제 10대 生産국의 地位를 유지한 셈이다.

84年度의 크링카 生産은 20,295천톤으로서 前年對比 97.6%를 나타냈으며 시멘트는 20,264천톤으로서 前年對比 95.5%로 다소 저조한 실적을 보인바 이는 전년에 비하여 內需는 增加하였으나 輸出部門이 크게 떨어진 데 기인한다.

즉 절대물량에서 內需는 85만톤 정도 增加한 반면 輸出은 185만톤 정도 감소하여 그 차이만큼 生産을 줄인 결과이다.

한편 가동율을 보면 年平均 86.5%를 보여 前年度의 88.6%보다 2.1%포인트 감소하였는바 이는 총출하의 감소를 반영한 것이다.

이를 分期別로 보면 1/4분기중 87.4%, 2/4분기 93.0%, 3/4분기 84.7%, 4/4분기 80.9%로서 1/4분기는 非需期를 틈타 各 生産會社들이 통상 대대적인 補修를 실시하는 時期라는 點에 비추어 볼때 매우 높은 實績이며 2/4분기 실적도 平均水準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인바 이는 年初 높은 내수 증가를 예상한 나머지 集中稼動한 結果이며 반면 3/4分期 및 4/4分期 實績이 신통치 않은 것은 內需가 豫想外로 低調하고 輸出마저 어렵게 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在庫負擔을 줄이기 위한 다소의 操業短縮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會社別로 보면 雙龍, 現代 및 高麗의 稼動率이 90%를 上廻하였고 亞細亞는 90%를

거의 육박하는 수준이며 韓一 및 星信은 77~78%, 東洋은 68% 수준인바 雙龍은 沿岸社로서 輸出을 감안한 結果로 풀이되며 現代는 自家消費가 많고 高麗는 地域的으로 規模에 비해 販賣가 容易한 點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韓一, 星信 및 亞細亞는 內陸社로 輸出이 不利한 點을 들 수 있고 東洋은 現在 進行中인 施設改替와 有關한 것으로 보인다.

2) 內需

(1) 需要部門別 實績

84年度 內需는 18,500천톤으로서 對前年比 4.8%의 微騰한 實績을 보였다.

83년의 높은 增加에 비하면 低調한 수준이기는 하나 비교적 安定된 成長을 보였다고 하겠다. 需給規模가 엄청나게 불어난 狀況에서 70年代와 같은 두자리 숫자의 增加를 기대한다는 것은 無理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를 需要部門別로 살펴보면 民需는 對前年比 107.9%, 官需는 88.2%를 나타내어 해가 거듭될수록 民需比重은 擴大되는 반면 官需는 縮少되는 現象을 볼 수 있는바 官需比重이 82年 20.5%, 83年 15.9%, 84年 13.3%로 줄어든 結果가 이를 잘 立證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政府投資事業이 시멘트 需要에 큰 영향을 미치던 과거와는 달리 경제규모가 점점 커지고 經濟運用의 민간주도 등으로 官需가 점차 줄어들는데 기인하며 특히 레미콘 사용의 확대가 民·官需의 격차를 크게 벌려 놓는데 一助를 한 셈이다. 이런 추세라면 86年경이면 관수 비중은 10% 미만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2) 季節別 實績

시멘트는 商品 特性上 季節別 수요의 特性을 지니고 있다.

今年에도 대체적으로 그런 특징이 나타나 1月, 2月 및 12月이 月平均 水準을 下廻하고 있으며 6月이 7~8月보다 低調한 것은 기현상으로 보인다. 다만 9月の 수준이 매우 낮은 것은 同月中 秋夕과 집중호우가 있었음을 고려하면 되겠다.

그러나 月別 對前年比를 볼때 지난 해에는 季

節에 불구하고 20% 前後의 安定的 增加率을 보였으나 今年에는 月別 增加率의 分布가 매우 不規則하고 起伏이 심하여 시멘트 景氣가 매우 不安定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런 現象이 85年에도 延長될까 우려되는 바 크다.

(3) 벌크시멘트 出荷比率

시멘트 出荷의 벌크化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벌크 出荷의 增大는 곧 輸送效率의 極大化를 意味하기 때문이다.

벌크化率 提高를 위해서는 벌크流通施設의 擴充, 벌크 輸送手段의 增強 등이 先行되어야 하는바 先進國의 경우 이에 對한 많은 投資와 需要者들의 選好度 提高로 이미 70%를 넘어섰으며 日本은 90%에 육박하고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도 최근 벌크化率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點이다. 1980年度에 21.3%에 불과하던 벌크化率이 年平均 4.4%씩 增加되어 今年에는 42%에 이르렀다.

이처럼 벌크 出荷率이 크게 向上되고 있는 것은 시멘트 業界가 기울인 流通基地의 擴充과 벌크 輸送手段의 增加에 힘입은 바 크고 아울러 消費者들의 벌크 및 레미콘에 대한 認識變化로 利用者가 增加된데 기인한다고 보겠다.

그러나 아직도 벌크出荷比率는 낮은 수준으로서 84年의 42%는 日本의 1961年 수준에 불과하여 向後 이의 增加를 위해 많은 投資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적어도 벌크對 포장시멘트 출하비율이 현재의 4:6에서 反轉되어 6:4는 되어야 수출 및 유통상의 큰 變化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現 추세라면 그 시기는 88~89년이 될 전망이다.

3. 輸 出

84年度의 輸出은 크링카 1,439천톤, 시멘트 1,761천톤 合計 3,200천톤으로 83年 5,052천톤의 63.3%로 매우 저조하였다.

이는 수출시장 환경이 매우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그 요인을 보면 ① 輸出單價가 相當 4달러 정도 하락했으며 ② 중동제국의 경기퇴조 및 政情不安으로 輸入需要 감소 ③ 동남아에서 最

84年度 시멘트需給總括

(단위:천톤)

		82(A)	83(B)	84(C)	C/A × 100	C/B × 100
供	移 越	498	548	498	100.0	90.9
	生 産	17,912	21,214	20,264	113.1	95.5
給 計		18,410	21,762	20,762	112.8	95.4
需	內 需	14,301	17,649	18,500	129.4	104.8
	民 需	11,364	14,868	16,047	141.2	107.9
	官 需	2,937	2,781	2,453	83.9	88.2
要	輸 出	(2,037) 3,561	(1,450) 3,602	(1,439) 1,761	(70.6) 49.5	(99.2) 48.9
	計	17,862	21,251	20,261	113.4	95.3
在 庫		548	498	501	91.4	100.6

註: 1. ()內 크링카輸出, 外需

2. 84.12月分 推定값임

大 市場인 인도의 경우 시멘트工場 新設로 수 입량이 감소되고 외화사정의 악화로 東歐圈과의 구상무역으로 우리와의 去來가 끊겼으며 ④ 터키, 스페인, 유고, 불가리아 등의 덤핑공세 ⑤ 싱가포르 市場에 스페인의 進出 ⑥ 輸出競爭國들의 供給 과잉 등을 들 수 있겠다.

한편 品目別 輸出實績을 構成比面에서 보면 크링카 44.6%, 포장시멘트 9.6% 및 벌크시멘트 45.8%로 83年度의 各各 28.7%, 42.6% 및 28.7%에 비하여 큰 變化를 가져왔는바 이는 시멘트 輸出의 패턴이 점차 벌크化되어가고 있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특히 今年度 포장시멘트의 수출이 지극히 不振한 이유는 패턴 變化外에 印度市場을 잃은데 있다. 즉 지난 해에는 印度에 포장시멘트만 113만톤을 輸出하였으나 今年에는 同市場에 14천톤밖에 하지 못했다.

全體로 볼때 數量面에서 크링카 및 벌크시멘트의 실적은 前年 水準과 비슷하나 포장시멘트만 대폭 감소된 셈이다.

한편 輸出實績을 금액面에서 보면 今年은 1억 1천만弗로서 지난해 2억弗에 비해 무려 45%나 감소되었다. 수출금액이 물량의 감소폭인 37%보다 더욱 심한 것은 單價의 下落, 포장시멘트의 감소 및 계약 형태가 C&F에서 FOB계약으로 바뀐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84年度 시멘트 需給實績은 上記 表와 같다.♣